2018년 12월 28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다우, 611p 하락을 뒤로하고 상승 전환 성공

S&P 500 12 개월 Fwd PER 14.2 배로 10 년 평균(14.6 배) 하회

미 증시 장중 하락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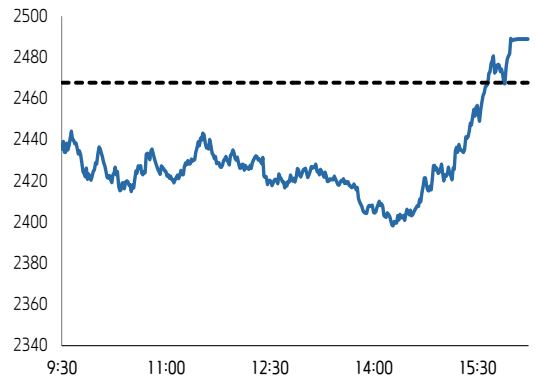
미 증시는 전일 상승에 따른 매물 출회로 장중 3% 내외 하락. 특히 미-중 무역분쟁 실무협상을 앞두고 화웨이, ZTE 를 대상으로 한 일반 기업들의 구매 제한 관련 행정 명령 가능성 보도도 투자심리 위축. 이와 함께 아마존과 AMD 등 일부 기업들의 악재성 재료도 영향도 하락 요인. 그러나 장 막판 양호한 밸류에이션을 바탕으로 저가 매수세 유입되며 상승 전환 성공(다우 +1.14%, 나스닥 +0.38%, S&P500 +0.86%, 러셀 2000 +0.15%)

12 월 말 미 증시는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며 변동성 확대에 자주 노출. 이로 인해 금융시장은 일부 변화 요인에 민감한 반응을 보임. 오늘은 ①화웨이 문제에 따른 무역분쟁 ②셧다운 지속 ③소비자신뢰지수 ④인도의 전자상거래 규제 강화 등이 영향

일부 언론은 트럼프가 미국 기업들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해외 통신업체(화웨이, ZTE)의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라고 보도. 이미 국가 기관은 관련 장비 구입을 중단 했으며, 이번에는 일반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 이는 1 월 7 일부터 시작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실무협상 불확실성을 야기 시키고 있어 투자 심리에 부담. 더불어, 셧다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진 점도 부담. 신용평가사인 S&P 는 "셧다운이 장기화 될 경우 미국 GDP 중 12 억 달러가 감소" 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한편, 인도 상공부는 2 월 1 일부터 전자상거래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 온라인 유통업체의 관계사 제품 및 독점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인데 아마존 등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투자회사들은 분석. 이로 인해 아마존이 장중 5% 넘게 급락하며 FANG 기업들의 하락을 부추김. 이와 함께 부정적인 경제지표도 부담. 12 월 컨퍼런스보드의 소비자신뢰지수(136.4→128.1)가 둔화되고, 특히 향후 미래를 알 수 있는 기대 지수가 전월(112.3) 보다 크게 둔화된 99.1 로 발표되며 내년 상반기 성장 속도 둔화 우려를 높임.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028.44	+0.02	홍콩항셍	25,478.88	-0.67
KOSDAQ	667.88	+0.32	영국	6,584.68	-1.52
DOW	23,138.82	+1.14	독일	10,381.51	-2.37
NASDAQ	6,579.49	+0.38	프랑스	4,598.61	-0.60
S&P 500	2,488.83	+0.86	스페인	8,363.90	-1.38
상하이종합	2,483.09	-0.61	그리스	597.83	-1.77
일본	20,077.62	+3.88	이탈리아	18,064.62	-1.8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대부분의 종목 낙폭 축소

아마존(-0.63%)은 인도 정부가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한 여파로 하락 했다. 아마존이 장중 5% 넘게 급락하자 FANG 기업들인 페이스북(+0.25%), 알파벳(+0.48%), 넷플릭스(+0.75%)도 동반 하락하기도 했으나, 장 막판 매수세가 유입되며 결국 상승 전환 했다. 자일링스(-1.08%)는 일부 펀드가 지분을 축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하락 했다. AMD(-2.29%)와 NVIDIA(-1.45%)는 RBC가 비디오카드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 2019년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한 여파로 급락하기도 했으나, 장 후반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이 축소되었다.

애플(-0.65%)은 퀄컴(+0.230%)과의 특허 관련 소송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연말 아이폰 판매가 예상보다 적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 했다. 더불어 일부 투자회사가 애플의 주가가 내년에 25%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자 장중 3% 넘게 하락하기도 했으나, 장 후반 낙폭이 축소되었다. 타겟(-0.61%), 메이시스(-0.30%) 등 소매 유통 업체들은 소비 둔화 가능성이 제기된 여파로 하락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0.53%	대형 가치주 ETF	+0.84%
에너지섹터 ETF	-1.20%	중형 가치주 ETF	+0.72%
소매업체 ETF	-0.25%	소형 가치주 ETF	+0.15%
금융섹터 ETF	+1.07%	배당주 ETF	-1.62%
기술섹터 ETF	+0.72%	변동성 ETF	+3.99%
소셜 미디어업체 ETF	+1.09%	대형 성장주 ETF	+0.86%
인터넷업체 ETF	+0.92%	중형 성장주 ETF	+1.00%
리츠업체 ETF	+0.23%	소형 성장주 ETF	+0.46%
주택건설업체 ETF	+0.65%	신흥국 고배당 ETF	-0.52%
바이오섹터 ETF	+0.37%	신흥국 저변동성 ETF	-0.18%
헬스케어 ETF	+1.12%	하이일드 ETF	-0.06%
곡물 ETF	-0.24%	물가연동채 ETF	0.00%
반도체 ETF	+0.88%	Long/short ETF	-0.0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25.97	+0.64%	-1.28%	-10.60%
소재	316.01	+1.85%	+1.43%	-5.07%
산업재	538.49	+1.24%	-1.02%	-8.37%
경기소비재	770.75	+0.24%	-0.59%	-6.55%
필수소비재	520.08	+1.02%	-2.04%	-8.08%
헬스케어	987.07	+1.07%	+0.28%	-6.52%
금융	392.00	+1.11%	+0.51%	-10.87%
IT	1,080.76	+0.77%	-1.05%	-5.96%
커뮤니케이션	138.65	+0.53%	-1.04%	-4.77%
유틸리티	268.11	+0.87%	-2.35%	-3.28%
부동산	191.88	+0.24%	-3.12%	-6.3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2018 년 마지막 거래일

MSCI 한국 지수는 0.20% 상승 했으나, MSCI 신흥 지수는 0.05%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1,805 계약) 여파로 1.45pt 하락한 260.0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19.1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일 중국 증시가 트럼프의 일반 기업들도 화웨이, ZTE 장비 구매를 중지 시키는 행정명령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이다. 이는 1 월 초부터 진행되는 미-중 무역분쟁 관련 실무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특히 1 월 10 일 미국 상무부의 산업안보국의 신기술 수출 규제 의견 청취 마감을 앞두고 있어 향후 중국의 '제조 2025'와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오늘은 2018 년 마지막 거래일이다. 27 일 기준 KOSPI 는 연초 대비 17.79%, KOSDAQ 은 16.35% 하락 했다. 이는 무역분쟁 당사국인 중국의 상해 종합(-24.92%)과 독일(-19.63%) 등을 제외하면 주요국 중 하락폭이 가장 컸다. 그러나 12 월 들어 한국 증시는 3% 내외 하락에 그쳐 10% 넘게 하락한 미 증시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KOSPI 의 12 개월 Fwd PBR 이 0.79 배에 불과할 정도로 과매도 구간에 들어서 있는 등 양호한 밸류에이션을 바탕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결과로 추정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오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오늘도 한국 증시는 견조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미 증시가 장 후반 3% 내외 하락을 뒤로 하고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한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소비 심리 지표 둔화

12 월 미국 소비자신뢰지수는 전월(136.4) 보다 둔화된 128.1 로 발표되었다. 현재 여건지수는 전월(172.7) 보다 소폭 하락한 171.6 으로 발표되었으나, 기대지수가 전월(112.3) 보다 크게 둔화된 99.1 로 발표되었다.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21.7 만건) 보다 감소한 21.6 만 건으로 발표되었다. 4 주 평균 수치도 지난주(22 만 2,750 건) 보다 감소한 21 만 8 천 건으로 발표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하락

국제유가는 이란이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민간 기업들을 통해 원유를 수출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 했다. 더불어 전일 상승에 따른 매물과 주식시장 부진 여파도 위험자산 선호심리 위축을 불러와 하락세를 더욱 부추겼다.

달러화는 경제지표 둔화 및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GDP 성장률 둔화 우려가 높아지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한편, 엔화는 글로벌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여파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으나, 장 후반 미 증시가 상승 전환에 성공하자 강세폭이 축소 되었다. 유로화와 파운드화를 비롯해 신흥국 환율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다만, 파운드화는 브렉시트 여파가 지속되자 강세가 제한된 모습이다.

국채금리는 소비자 신뢰지수 둔화와 주식시장 약세 여파로 하락 했다. 더불어 신용평가사인 S&P 가 셧다운이 장기화 되면 미국 GDP 가 12 억 달러 감소 할 것이라고 발표 한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7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2.53 배)를 하회한 2.46 배에 그치며 하락을 제한 했으며, 미 증시가 장 후반 낙폭을 축소한 점도 금리 하락폭을 축소 요인이었다.

금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상승 했다. 비철금속은 연휴 마감 후 달러 약세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31%, 철근도 0.88%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WTI	44.61	-3.48	-7.39
브렌트유	52.16	-4.24	-8.87
금	1,281.10	+0.64	+1.97
은	15.310	+1.24	+3.32
알루미늄	1,851.50	-2.19	-3.82
전기동	5,986.50	+0.52	+0.28
아연	2,495.00	+0.85	-0.99
옥수수	374.50	+0.33	-1.90
밀	510.50	+0.10	-2.30
대두	882.50	-0.06	-3.34
커피	101.75	-2.07	+0.89

주요 통화	종가	D-1(%)	D-5(%)
Dollar Index	96.552	-0.51	+0.29
EUR/USD	1.1439	+0.76	-0.06
USD/JPY	111.06	-0.28	-0.20
GBP/USD	1.2655	+0.17	-0.01
USD/CHF	0.9874	-0.83	-0.05
AUD/USD	0.7032	-0.48	-1.07
USD/CAD	1.3617	+0.32	+0.80
USD/BRL	3.8745	-1.34	-0.56
USD/CNH	6.8748	-0.29	-0.30
USD/KRW	1120.00	-0.48	-0.31
USD/KRW NDF1M	1119.15	-0.30	-0.19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781	-2.70	-2.56
한국	1.937	0.00	+1.40
일본	0.026	+0.40	-0.10
독일	0.231	-1.90	+0.30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스페인	1.382	-1.50	+1.10
포르투갈	1.677	0.00	+2.80
그리스	4.366	+3.60	+9.50
이탈리아	2.744	-8.30	+1.00